나의 20년 정리하기

나는 여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삼 남매 중 둘째이다. 보통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난 여느 평범한 가정이 아니다. 나에게 헌신해주시는 엄마, 아빠의 밑에서 자라왔으니까. 난,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자라고, 어느덧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인천인이 되었다. 나의 어린시절을 돌아보면 그땐 그때가 너무 좋았다. 동네 엄마들과 우리 엄마들이 친해서 자주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난 걸어다닐 때마다 개미를 밟았는데 글쎄 그 개미가 꼬꼬마였던 나에게는 엄청 큰 개미같아 보였다. 그래서 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무찌른다 생각하고 밟고 다녔나 보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작은데… 그리고 지금은 의외로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리고 난 다리찢기가 안 돼서 약 1년간 발레를 다녔다. 결국 1년째도 다리찢기가 안 돼서 발레를 끊었다. 아이러니한 나의 신체다. 그리고 수영도 배웠다. 절친한 친구와 수영을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수영장의 락스 냄새, 그 시간대의 햇빛, 운동을 끝마치고 난 뒤의 나른함, 샤워를 하고 나서의 개운함… 버스 안 졸린 공기… 생각해보면 그땐 그렇게 암바사가 먹고 싶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의 내가 돈이 어디있겠는가.. 입맛만 다셨던 기억이 있다.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엽다. 대구에 살았던 시절 나를 생각해보라 하면 유난히 그냥 그 시절의 정경이 삽화처럼 불쑥 불쑥 튀어나온다. 참 예뻐보인다. 그리고 우리 단지엔 씽씽이가 있었다. 이사올 때 껌종이 스티커를 씽씽이에 붙이고 왔다. 근데 이사 가고나서 한 3?4년 정도 후에 대구를 온 적이 있다. 그 때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대구에 방문했다. 놀이터가 리모델링 됐더라. 모래바닥이 푹신한 엠보싱 바닥으로 바뀌었다. 서글펐다. 또 나는 옆 집 아기를 너무 좋아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방과후를 여러 개 했었는데 그 중 수묵화를 제일 잘했다. 배우는 족족 흡수했다.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였다. 그런 줄만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인천으로 이사왔다. 대구에 살 때는 인천이라고 하면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바다를 생각했다. 새 집을 보기 전까지 나는 우리 집이 바닷가에 있는 집일 줄만 알았다. 이삿날 우리집을 처음 보았다. 집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좋았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집이 이렇게 높다니. 처음 학교에 등교할 때, 말을 못 했었다. 사투리를 쓰면 애들이 놀릴까봐. 그래서 숙연한 아이로 지냈다. 물어볼 것이 있어도 섣불리 물어보지 못 했다. 놀림 당할까봐. 이사 며칠 후 대구 친구와 영상통화를 했다. 반가운 마음에 울컥하다가도 그새 사투리 억양이 이질감이 들었다. 신기했다. 수묵화를 배우려 알아봤다. 방과후에 없댄다. 미술학원도 수묵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주산을 배웠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냥 하던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전교 1등을 했단다. 그리고 어느새 적응을 마쳐 초등학교땐 탄탄대로만 걸었다. 그때의 내 꿈은 치과의사였다.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다. 중학교에 원서를 넣을 시기가 되었다. 공부를 잘 한다고 명성이 나 있는 학교에 지원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걸리는 그 학교로 진학을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 학교에 진학했다. 아는 친구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친구들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친해지고, 지냈다. 그때부터였다. 수학이 너무 어렵고 수학시간이 싫어졌다. 성적도 그냥저냥 나왔고 수학시간이 힘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반에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에게 쉬는시간 마다 문제집을 붙잡고 물어봤다. 그렇게 독서실도 다니고, 체육시간엔 늘 수학문제를 생각하며 공부했다. 하지만 수학 성적은 제자리였다. 그때부터 좌절을 시작했다. 난 안돼. 어차피 쟨 못 이겨.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려워서 난 안돼. 이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그렇게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수학성적이 유난히 나오지 않았다. 쉬는시간마다, 짬 날때마다 공부를 했기에 다른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아주 잘 할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수학 성적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과목들도 최상위권은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학원 다니기, 선생님께 조언 구하기, 검색으로 여러 방법 찾아서 시도해보기 등… 하지만 끝내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명문대에 대한 갈망이 있던 나는, 수시에 쓴 학교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렇게 재수를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수해서 설마 성적이 안 오르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

2020년, 끝없는 희망고문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한 해였다. 늘 그렇듯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 선택을 해서 후회는 없다. 단지 수학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

글쎄 이건 최근에 한 수업 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안 사실인데 나에겐 둘째라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다. 그냥 왠지 모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엄마가 싫어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예쁨받으려고 한다. 또한 자기주관이 없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가 곧 내 생각이다. 사실 20살이 되었을 때, 홍대에서 우연한 기회로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아마 이대로 살다 보면 20대 초반에 아마 못 버틸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그땐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20살의 예나와 21살의 예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깨달은 점도 많고 변화된 점도 많다. ‘내가 무슨 사람인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정은 뭔가?’ 를 생각했다. 평생을 내 주관없이 살아와서 당장 옷을 뭐 입을지, 저녁을 뭘 먹을지도 남의 의견을 묻는다. 자괴감이 들었다. 나이는 21살인데 할 줄 아는 게 없더라. 그래서 생각했다. 당장 작은 의사 결정부터 내 스스로 하는 버릇을 들이자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싫으면 싫다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근데 이렇지 않으면 어떡해. 내가 힘든걸. 이렇게 내 의사를 조금씩이나마 말하는 연습을 하니 그동안 인지하지 못 했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가령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 “이걸 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 답이 안 나와서 며칠을 속앓이를 하며 지냈다. 왜 나는 이런걸까. 결국 살아온 환경에 답이 있었음을 알아냈다. 본능적으로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알았다. 주위 어른이 “넌 누가봐도 둘째야. 셋째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야” 라고 하셨다. 그 때서야 알았다. 나는 모르는 부분들이 남에게는 보이는 구나. 또, 나란 사람은 떨고있을 때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다고 한다. 그래서 차분해지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나의 21년째, 현재는 수능이 끝났다. 사실 그동안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닌, 해야만 하니까, 나는 목적이 없는 배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난 아직도 내가 뭘 진정으로 좋아하는 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능이 끝난 후 결과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을 좀 더 늦게 했을 것만 같다. 그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꾸역꾸역 학과 공부하고, 그대로 졸업했을 것만 같다. 난 그래서 후회없이,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자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동아리와 소모임을 들었다. 못해본 것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험생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의 활동은 감감 무소식이고 학교도 안 가고 현재 나는 밖도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와 티비 보며 뒹굴뒹굴 살고있다. 아마 내 인생 중 가장 무기력한 때가 아닌가 싶다. 가끔은 생각한다. 제일 예쁘고, 빛날 때이지만 왜 이렇게 몸은 불어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지.. 핑계같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 청춘을 보내기엔 청춘이 너무 아깝다. 21살의 예나가 후회 남지 않게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바란다.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